



환경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2. 18.(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2. 2. 16.(수)
-------	-----------------------------------	-------	-----------------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금병욱 (044-201-6690)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및 종합플랫폼 공개 -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

-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 환경성(E)은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대비 자원, 에너지 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환경성 평가체계 구성>

구 분		세부내용	
기본 부문 (100점)	온실가스 (25점)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감축 성과(3), 산업 내 성과(2), 산업리스크(1)를 가중평균한 값
	대기오염 (25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총먼지)	
	수자원 (25점)	· 용수사용량 원단위	
	폐기물 (25점)	·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가·감점 부문 (±10점)	가점지표(+10점)	· 환경인증실적	
	감점지표(-10점)	· 환경관계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 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정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성 평가체계 주요내용.
 2.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3. 질의응답. 끝.

※ 별첨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총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금병욱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책임자	실 장	곽대운 (02-2284-1960)
		담당자	연구원	이준현 (02-2284-1962)



□ 추진배경

- 국내에서는 평가기관별 상이한 ESG 평가 기준에 대한 혼란, 중소기업의 ESG 대응 어려움 등 ESG를 “평가·규제” 문제로 인식
- 단편적인 “평가 대응”을 넘어, 기업과 금융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ESG 평가에 대한 장기적·정책적 접근 필요
- 데이터 기반 신뢰성 높은 평가체계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환경책임투자자와 기업 환경개선 노력 정착 유도

□ 구축방향

- 환경정보공개제도 등과 연계, 환경부가 실제 수집한 정량 데이터 중심 평가지표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시장의 자율적 역할 지원, 활용도 높은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산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양한 기관이 필요와 목적에 맞게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

□ 평가 및 분석 대상

- (분석대상) 국내기업 82,432개 사, 2016년~2019년간 4개년 정보
 - ※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용수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중 1개 이상 데이터가 있는 기업은 분석 대상에 포함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바탕으로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 등을 반영하여 25개 산업군*으로 분류
 - * 제조 12개 업종, 비제조 13개 업종으로 구성
-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유사성에 따라 군집분석 후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통해 산업분류
 - ※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활용

□ 평가체계 주요내용

<평가체계 구조>

기본부문(정량평가)	가·감점 부문(정성평가)	
기본지표(온실가스·대기·수질·폐기물) 100점	+	가점지표 10점
	-	감점지표 10점

① 기본부문



○ (평가 분야)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 분야 정량평가

* 국가 환경DB 활용하되, DB 정보가 한 분야라도 있는 기업은 평가 대상에 포함

(예시 : 올바로시스템 등 폐기물 정보만 있는 기업은 폐기물 분야 평가점수로 기본부문 점수 도출)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대기오염)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총먼지 배출량
- (수자원) 용수사용량
- (폐기물) 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배출량

○ (분야별 점수) 세부 분야별 배출량 원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①감측성과, ②산업 내 성과, ③산업리스크를 ④3:2:1로 가중평균 하여 점수 산출

* 배출량(사용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경제활동 규모 당 발생하는 환경부하 수준을 평가

※ (세부지표별 점수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용수사용량 등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고, 상한값 및 하한값 사이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0점 단위로 점수 산정 (10점~100점)

① (감측성과) 기업의 감측 노력을 평가하여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 유도

산출방법 : 당해연도 해당기업 배출량 원단위 ÷ 직전 3개년 해당기업 평균 배출량 원단위

- ② (산업 내 성과) 동일산업 내에서 기업의 당해연도 배출량 원단위를 상대평가하여 동종업계 대비 기업의 환경관리 성과 평가

산출방법 : 당해연도 해당기업 배출량 ÷ 당해연도 해당기업 매출액

- ③ (산업리스크) 국가 전체에서 해당 산업이 미치는 환경부하를 평가하여 해당 산업이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산출방법 : 해당산업 총 배출량 ÷ 해당산업 총 기업수

(예시) 온실가스 분야 산업리스크 : 철강 20점, 석유정제 10점, 금융보험업 70점, 숙박·음식점 80점

- ④ (가중치 부여)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관련될수록 더 큰 가중치 부여하여 가중평균, 분야별 점수 도출(감축지표 x3, 산업내 성과 x2, 산업리스크 x1)

※ 본 평가체계 활용 시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기관별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자율적 변경 가능

- (기본부문 점수) 온실가스, 대기, 수질, 폐기물 4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기본부문 점수 산정(100점 만점)

② 가·감점 부문

- (가점지표)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에 따라 가점(+10점)
 ※ 환경신기술 검증(2), 환경신기술 인증·환경경영시스템·저탄소제품·환경표지인증(1.5), 녹색·GR인증(1)
- (감점지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평가연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및 경중에 따라 감점(-10점)
 ※ 경고·개선명령·과태료(-1~-4), 이행명령·조업정지·과징금(-3~-10), 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취소(-7~-10)

□ 활용방안

- (금융기관) 기존 녹색경영금융시스템(enVinance)을 발전시켜 제공, 평가 우수기업 금리우대상품, 지수상품펀드 등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 개발
- (ESG 평가기관) 평가기관에 평가방법론, 데이터 분석 의의 등을 제공하여 민간기관의 환경성 평가 수준 제고
- (기업) 개별기업에 지표별·산업별 점수체계를 제공, 자신이 속한 위치를 파악하여 리스크 분야 파악, 대응책 마련 등 환경경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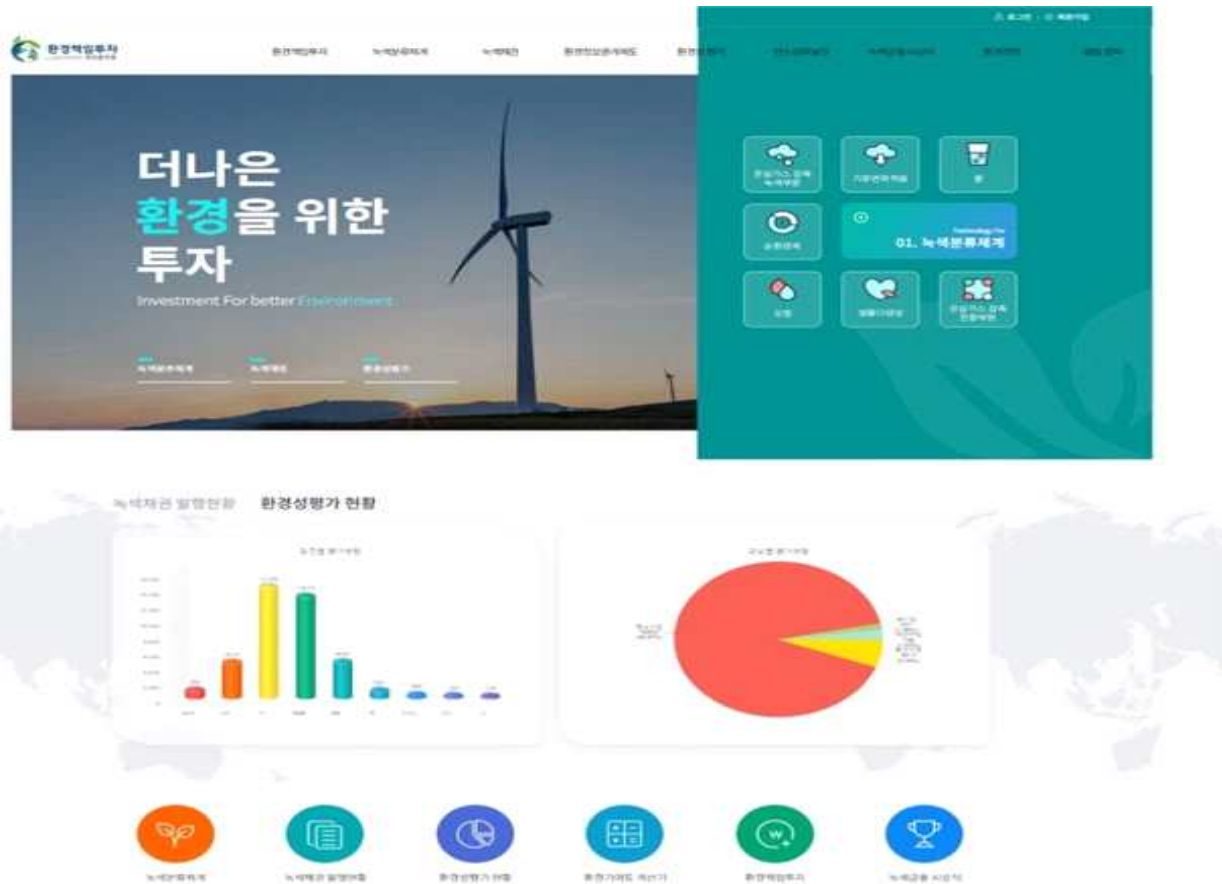
붙임2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 종합플랫폼 구성도

환경책임투자	녹색 분류체계	녹색채권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성평가
환경책임투자 소개	분류체계소개	녹색채권소개	정보공개 제도 소개	환경성평가 소개
환경책임투자필요성	적용대상	녹색채권 발행현황	기업·기관 환경정보	평가산식
국내정책추진방향	녹색채권 관리체계와의 관계	기여도 계산기	환경정보소개	평가현황
추진사업소개		해외 녹색채권 관련기준	기타자료	지원현황
		가이드라인	국내외환경정보 공개현황	
			알림/참여	
탄소감축실천	녹색금융시상식	환경경영	공지사항	국제협력네트워크
생활속 실천사례	시상식소개	환경기업컨설팅	동향뉴스	커뮤니티
정책방향 (K-RE100 등)	수상분야 및 기준	녹색기업	세미나/강연소식	관심메뉴
	수상기업 소개	환경경영트렌드	각종 보고서	

□ 종합플랫폼 메인페이지



① 산업분류를 재편한 이유는?

- ☞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성에 대한 통계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5개 산업분류를 도출하였음.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의 경우 25종의 제조업이 하나의 산업 코드로 편제되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중분류는 77종으로 과도한 세분화로 인한 산업별 기업 수 부족으로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었음.

② 평가항목이 단순한 것은 아닌지?

- ☞ 평가의 신뢰성, 편의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임.

③ 산업리스크, 산업 내 성과 및 감축 성과의 가중치가 다른 이유는?

- ☞ 산업 내 성과 및 감축 성과는 개별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④ 기업의 환경측면 성과를 평가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는지?

- ☞ 본 평가체계는 환경성 평가과 관련된 참고자료로서 투자자, 평가기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